

## 48

## 다윗과 절뚝발이 왕자

사무엘하 4장 4절, 9장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전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가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렀습니다.



다윗 사울의 가족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입니다.

시바의 말을 들은 다윗은 즉시 사람을 보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일서 3:1)



48

다윗 앞에 온 므비보셋은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다윗

두려워 마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네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므비보셋

이 종이 무엇이관대 죽은 개처럼 <sup>1)</sup>비천한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 주었습니다.

이제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항상 다윗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1) 비천: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하다.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 1.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다음 말씀을 찾아 적어 봅시다. (마태복음 5:15)

.....

.....

.....

.....



## 2.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면서 느꼈던 점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 사랑을 베풀은 일	느낀 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11)



# 예 화

## 은혜를 기억해요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던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학교에 다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파테레브스키를 초청해 음악회를 열어 그 돈으로 학비를 벌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악회가 실패하여 파테레브스키에게 줄 돈의 일부밖에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파테레브스키는 그 돈을 받지 않고 그 학생들이 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음악가 파테레브스키는 폴란드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폴란드는 전쟁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파테레브스키는 고민 끝에 미국에 식량을 달라고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미국으로부터 벌써 많은 식량이 도착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인 후버를 찾아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후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식량이 필요할 것 같아 보내 드렸을 뿐이에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렵게 대학을 다니던 때에 당신은 제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후버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파테레브스키에게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